

90만명 주민번호 인터넷에 떠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구글DB(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를 검색해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난 7월24일부터 1주일간 가동한 결과, 6천337개 웹사이트에서 90만3천665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13자리 전부가 노출된 경우는 993개 사이트(공공기관 334곳·민간기관 659곳)에서 9만5천219명에 달했다.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가 노출된 경우도 5천344개 사이트(공공기관 1천91곳·민간기관 4천253곳) 80만8천446명이었다. 이는 1900년 1월1일 이후부터 1999년 12월31일 사이의 주민번호를 검색한 것으로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와 함께 다른 검색 사이트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주민번호 노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출 형태는 웹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한 하이퍼텍스트 생성언어(html) 형식이 98.96%였고, 나머지는 워드(hwp, doc)나 엑셀 등의 첨부파일 형태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9.7%, 30대 18.9%, 40대 17.6%, 10대 14.9%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20대의 주민번호 노출이 가장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

소방방재청, 15일까지

소방방재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발령했던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 단계 올려 오는 15일까지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 주말(7·29~30) 동해안에만 80여만명의 피서객이 몰려 전국적으로 19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7.30~31)에 발생한 8건(사망 6명)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 31일 하루만도 전국에서 13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3명만 구조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 장마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과 바다로 몰리는데 장마로 물이 불어난 계곡 등에 급류가 형성돼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경보 발령에 맞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384곳 물놀이 위험지역에 소방관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119 시민수상구조대' 4천여 명을 배치,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계곡,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 ▲안전표식 설치 및 관리 강화 ▲안전시설물 점검 ▲안전취약지역 순찰 강화 ▲119 기마순찰대 운영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연합뉴스

암벽 마니아 4명 월출산 사자봉 릿지에서

자일 부족 한밤중 5시간 매달려

마지막 80m 하강지점에서 10m 모자라 해발 510m...기온 28도 '열대야'로 무사 허가없이 등반 1인당 50만원씩 과태료

결코 만만한 산은 없었다. 해발 809m로 낮은 영암 월출산도 그 깊은 속살을 몰래 들춰본 사람들에게 적잖은 시련을 안겨줬다.

평소 북한산 인수봉과 설악산에서 암벽등산을 즐기는 김모(47·서울시 서대문구)씨가 아들(17)과 월출산을 찾은 것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씨 부자와 동료 산악회원 등 4명은 고즈넉한 천황사 입구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운 뒤 20여 분을 걸었다.

구름다리와 바람폭포 갈림길에서 일행은 등산로를 벗어나 바람폭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계곡을 따라 숲 속을 헤치며 걸다가 배낭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린 곳은 바위지대. 선등자(先登者)가 경사가 급하지 않은 슬랩(slab·매끄러운 바위면)을 올랐다. 버리고 버려던 월출산 사자봉 릿지(ridge·암릉) 등반을 시작한 것이다.

산행은 순조로웠다. 곳곳에 볼트와 하켄(haken·금속채 등의 확보물) 등 도 잘 설치돼 있었다. 발 아래 멀리 영암 들뜰은 푸른 빛으로 일렁거렸다. 천황봉과 장군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도 장쾌했다.

하지만 마지막 80m 구간을 하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대비, 자일(seil·로프)도 80m짜리를 가져왔지만 크랙(crack·바위 틈새)에 끼는 바람에 회수를 할 수 없었다. 하강지점까지는 10여m가 부족했다.



같은 시간, 영암소방서 119구조대는 김씨의 구조전화를 받았다. 구조대원 안씨는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형제봉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멀리 어렵듯이 비치는 불빛을 따라 다시 내려가 조난지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을 넘은 1일 새벽 0시30분이었다."

어둠 속에서 5시간여를 바위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리던 김씨 일행은



월출산 사자봉 릿지. 릿지 전체 길이는 300여m로 자일 등 암벽등반 장비를 넉넉히 준비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모두 무사했다. 주위는 컴컴했지만, 열대야(熱帶夜)로 기온이 28도나 났고, 찬바람이 불지않아 저체온증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자봉 릿지 구출작전은 새벽 3시에 끝났다. 비상탈출에 성공한 김씨는 김씨의 구조전화를 받았다. 구조대원 안씨는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형제봉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멀리 어렵듯이 비치는 불빛을 따라 다시 내려가 조난지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을 넘은 1일 새벽 0시30분이었다."

한편 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암벽등반 이용 신청서'를 작성치않고 허가없이 릿지를 탄 김씨 일행 4명에게 '자연공원법'(제28조 : 출입금지지역 출입)을 적용,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영암·김현기자 hnkim@kwangju.co.kr

■ 사자봉 릿지

사자봉 릿지(ridge·암릉)는 형제봉·연시루봉과 더불어 월출산 3대 릿지 등반코스다.

난이도는 5.7~5.9로, 1980년 전남대 의대산악회가 개척했다. 루트(route·코스) 길이는 바람굴에서 사자봉까지 300여m로 10피치(pitch·루트의 한 부분으로 클라이밍 단위)다. 슬랩(slab·매끄러운 바위면)·크랙(crack·바위 틈새)·침니(chimney·몸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바위틈)로 이루어져 아찔하기만 한 맛이 있다. 하강까지 5~6시간 걸린다.

사자봉 릿지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자일 한 동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독극물 콜라' 광주에도 4병 있었다

검찰, 단독범행 결론

독극물이 투입된 코카콜라가 화순과 담양뿐 아니라 광주에서도 발견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김길

주)는 1일 코카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하고 회사를 상대로 가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여·41)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박씨가 지난달 7~8일 광주시 화정동과 주월동 슈퍼마켓 두 곳에도 독극물을 주입한 코카콜라 600ml PET제품 4병을 갖다 놓은 것이 확인됐

다고 1일 밝혔다.

에초 경찰 조사에서는 박씨가 지난달 8일 화순군 화순읍 모 슈퍼마켓에 2병, 담양군 모 식당에 1병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박씨가 독극물을 주입한 코카콜라는 모두 7병으로 늘어났다.

박씨는 지난해 사재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3억원을 떼인데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식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서 3억9천여만원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회원 가입 사이트가 80여 개에 이르는 등 인터넷에도 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극물 협박 사건이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이날 박씨를 공갈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6896)



연제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전·현직 남구의원 비방 수사

광주 남부경찰은 최근 광주 남구의회 전직 의원 김모(50)씨와 현직의원 신모(50)씨가 "남구청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이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바다에서 3시간 표류 형제 극적 구조

○...바다 한가운데에서 3시간 가까이 표류하던 10대 형제가 해경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목포해경은 1일 오후 3시40분께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대산마을 앞 6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박모(16·강원도 원주시 모 중학교 3년)군과 동생(13·초등학교 6년)을 구난 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

○...박 군 형제는 이날 오후 1시께 백산리 바닷가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작은 뗏목을 타고 놀다 강한 조류를 휩쓸려 먼바다로 떠내려갔는데, 저체는 증세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팀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70% 에너지 절감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어컨·난방기류 1대로
냉난방 효율이 70% 이상 향상됩니다

▶ 신기술 에어컨 및 난방기류의 장점 ▶
신속한 냉난방, 적은 전력 소비, 넓은 공간 냉난방 가능, 실내 공기 정화 기능, 저소음, 원격 제어 기능 등

▶ 품질 우수 진보 제품 지원

팀피아 에어컨, 난방기류

1062-222-7118
080-775-7117

재일모직 outlet 판매장 사거리

재일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백화점 1병 가격으로 2병 혜택

60~40% 할인

신발, 가방,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신의복, 속내복, 면의복, 면의복, 면의복, 면의복

이웃을 위한 나눔
재일모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reil outlet
02-222-7118